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해룡사 미륵불 눈·입 새로 새겨 특이한 형상

■ 석불연구회 답사

경기도 이천시 해룡사(주지 인공) 경내에 있는 미륵불은 상투와 형상이 특이하여 눈길을 끈다. 키(앉은높이) 90cm, 폭 82cm인 이 미륵불의 부조기법은 마애불형식으로 처리됐지만 수인이 정확치 못한 것으로 보아 비전문가들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상에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육계와 삼도가 없고 우견편단만 갖추고 있다. 얼굴상호중 눈과 입 부분은 후대에 새로 새긴 흔적이 역력하다. 시대적으로 봐서도 돌재질 등 형식은 조선시대의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발부분을 옷주름과 연꽃좌대로 기린 상현과 형식은 삼국시대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기법이어서 혼란스럽다. 미륵불옆에는 높이 40cm, 폭 20cm의 용왕상이 있는데 개금이 벗겨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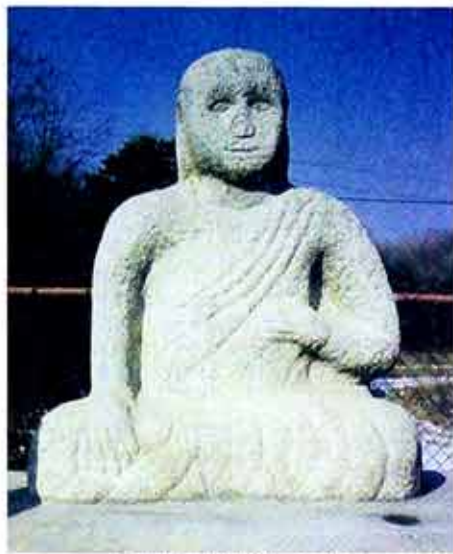
육계·삼도 없고 수인도 불명확 조선시대 조성 추정

용왕상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점은 미륵불도 원래는 크만 조각되고 눈과 입이 그려져 있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눈·입이 지워지면서 후대에 새로 조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

이근후 석불연구회 회장은 "해룡사 미륵불의 조각은 정형이 아닌 이형이다"며 "시기는 조선시대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했다.

지극주인인 김병기씨(66세)는 "14세때쯤 당시 마을의 기도처였던 해룡사에 미륵불이 모셔지는 것을 보았다. 마을사람 여러명이 소달구지를 이용해 미륵불을 싣고왔다"고 회상했고, 해룡사 주지 인공스님은 "10년전 이곳 해룡사에 왔을 때는 아뢰에 있었다. 원래 해룡사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해룡사 경내에 있는 미륵불.

법당에 주불로 모셔졌던 것이 18년전 법당을 신축하며 아뢰로 옮겨졌다고 노스님께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상의 곁에 흙이 칠해져 있어 처음에는 석불인지도 몰랐다는 얘기를 노스님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는 이천시 도리리 소문리 고개에 이불모를 절터가 남아있는데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쓴 석불입상과 탑이 있다. 주춧돌이 널려있고 죽산 미륵탱이라고 불리고 있어 사자라는 것이 확실한 만큼 군부대가 들어서는 공사중에 이곳에 있던 미륵불이 해룡사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한다고 인공스님은 덧붙였다.

정리=김원우 기자

동성재 미륵불

고종: 정영호 박사



동성재 미륵불(본지 165호 24면 참조)은 육계도 없고 삼도도 없던 원만한데 어깨

가슴이 답답하다. 손에 악명이 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법의가 양쪽 어깨에 걸쳐져 있는 통견과 육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불상이 확실하다. 수인은 통일을 표현하고 있으며 손가락이 떨어지고

"통일신라 여러불" 양산 미타암 불상 양식

코가 뾰족했지만 전체적으로 불상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 하체가 약하게 처리된 것이 약간 흠이다.

관석같은 한줄에 양각으로 해서 불상을 조각한 예가 양산 통도사 말사 미타암 동굴에도 모셔져 있는데 동성재 미륵불도 같은 형식이다. 이런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유행했는데, 신라시대 불상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신행수기 당선작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②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불

교연수원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법회를 열었다. 그것은 불교를 접할 수 있었던 또다른 기회였다. 법문은 대전에 있는 불교 종합학교인 보문고등학교 이재복 교장선생님께서 맡아 하셨다. 이재복선생님은 지금의 동국대 전신인 해화전문학교를 나오셨고 감사에도 계셨던 분으로 교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깊은 지식을 갖추고 또한 문단에서도 인정받는 시인이었다.

나는 법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부처님 말씀은 법회선설식이란 말처럼 나의 인생을 받고 환하게 해주었고 때때로 긍정적인 신념을 심어준 생애의 목표가 되었다.

교장선생님은 8절지향전에 부처님 말씀을 등사해서 일일이 나눠 주고 설명해주었다. 불교설화와 부처님 본생담 등을 곁들여 교리를 이해시켜 주었고 서양의 철학과의 비교하여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었다. 나는 부처님 말씀에 한층욱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안달이 났다. 그래서 자칭하여 프린트를 맡기로 했다. 금요일에 교장선생님을 뵈고 평안을 받아 원지에 작성해 온 다음은 근무하는 곳의 등사실에서 등사하여 일요일에는

담육의 무지가 어떤 것일지도 알게 되었다. 배는 강을 건너는데 필요하다는 불교의 진리는 나에게 참 자유를 보여주었다. (유미경)을 읽고는 대승불교의 진수에 감탄을 하였으니 일상사의 시비를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겨울산립 법회인 성도절 때는 일주일 시한부 가축(?)을 하여 절에 머물면서 자신의 문제에 같이 파고 들기도 하였고 어느 때는 공양하고 잠자는 시간을 아끼면서 매일 관음경근 10만독도 하였으며 하루 네번 예배에 자신을 잊고 지내기도 하였다. 스스로 생각해보니 평생에도 이렇게 정진한 것이 아니었다 하며 미소도 지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타지수에서 고시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법회의식인 찬불가를 반주할 수 있는 도량 속에 지냈다.

그런 나에게 커다란 시련이 왔다. 1973년 봄, 나는 우연히 언덕에서 밭을 짓고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허리 디스크로 앉지도 못하기도 못하기도 못하기도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스물아홉, 결혼도 마다하고 노부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노부모님 앞에서 누워지내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된 것이다. 휴직까지 하고 누워지내는 나에게

이론만 밝던 불교신자 극심한 디스크 앓으며 또다른 불교세계 체험



그림·이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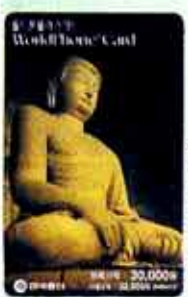
종언니가 위로차 찾아와 한다는 말이 "명숙아, 너 하느님 안 믿고 그런 미신 믿으니까 이렇게 된거야. 이 기회에 개종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부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믿고 귀만 종성한, 지식인인 척하는 교만한 불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관음보살님의 가피력이나 부처님 위신력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마른 풀같은 불교신도.

정형외과, 한방병원, 서울에서도 유명하다는 의료원을 전전하면서 치료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수술을 해도 차도가 없다는 진단이 나와 생애 의욕이 꺾인 상태에서 이종언니의 독선은 오히려 나의 의식을 깨우쳐 주었다.

조명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전화카드에 석굴암부처님

한국통신 국제용 2중 판매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부처님이 국제공중전화카드에 왔다. 한국통신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월드폰플러스카드(사진)에 석굴암부처님 정신상과 얼굴부분을 담은 2중용의 국제전화카드를 제작, 23일부터 시판한다. 일본, 인도, 태국 등 불교 국가를 포함한 세계 50개국과 국제전화를 할 수 있고 그들 나라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월드폰플러스카드는 통화료가 다른나라 카드보다 70%나 저렴한 뿐만 아니라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방송 소식

이사에 정우스님 손현수씨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0일 불교방송회의실에서 '제32차 불교방송 이사회'를 개최하고 15일로 임기가 만료된 정재각이사의 연임과 정우스님(불교TV사장), 손현수 회장(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의 이사 선임을 결의했다. 불교방송이사장 도후스님을 비롯 13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3월30일 단행한 구조조정 상

황보고와 불교방송 존립을 위한 후원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초파일특집 군법당 방영

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7일~5월2일 오후 4시10분부터 4시50분까지 '특집, 군법당에 자비의 손길'(담당PD 안재인)을 방영한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군포교의 중요성 및 부산, 경남지역 군법당 현황, 종단차원의 군포교 설정, 지원계획 등을 살펴본다.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월평균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부처님 오신날

PCS 016 「특별할인판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우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할인판매전을 500대 한정판매 합니다.

기간 '98년 4월 26일 ~ 5월 4일

대상 스님, 중무원, 재가신도

가격 5만원부터 (가입비 별도)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02)732-1522 FAX. 02)737-0697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2-1522)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격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소리가 보인다

